

온라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온라인 자료의 인용정보를 기록할 때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함. 본 사례집의 온라인 자료 인용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권고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용방식은 참고자료로 사용함이 바람직함.

온라인 자료에 대한 출처 인용표기에 대한 부분은 영구적인 저장이 되는 URL이 아닌 이상 검색일을 기록해야 함. APA 7판에서는 온라인 자료가 아카이브 되어 있다면 검색일은 필요하지 않으나, 아카이브 버전에 대한 링크가 영구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입력자료 URL과 검색일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APA, 2020:455, 461).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 인용 사례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는 타인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구성 또는 사실을 재구성한 창작물임. 따라서 강의 자료의 사진을 일부 캡처하거나 저장해서 온라인 강의 자료(강의 슬라이드)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²⁹⁾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용 전에 저작권 법상 제한을 꼭 확인하고 저작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허락을 받은 후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튜브 동영상 자료 또는 온라인 강의 자료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저자명(기관명), 게시일, 제목, 접속일, URL, 파일형식(Viedo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영상 클립을 캡처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혹시 활용한 자료가 2차 문헌이라면 가급적 1차 문헌을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하며, 2차 문헌만 활용하였다면 1차 문헌과 2차 문헌의 출처를 함께 표기해야 함.
-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 때, 그 범위가 저작권법 제28조 안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²⁹⁾ KIPACAFE(2020. 6. 24.작성) 온라인 강의, 저작권 주의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pracafe/222011119542>
(접속일: 2021. 10. 12)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하는 “주종관계”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사이의 주종관계”의 문제로 파악하여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보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34).

- 공표된 온라인 영상물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여기에 부연, 예시, 설명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있으나, 자기개발서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주종 관계가 역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이 필요함(오승중, 2020:189).

부적절한 인용 예시



리더와 조직원들과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리더는 소통을 통해 비전과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필요한 시대이다(KIRD, 2021). KIRD(2021)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말하기 방법 즉 전달방법과 전달과정에서 편안함을 주는 제스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특히 경청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줄리안 트레저의 5가지 잘 듣는 방법 중 RASA를 소개하였다.



〈그림1〉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출처: youtube(2021)

Julian Treasure(2011)은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5 ways to listen better)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침묵(Silence)이다. 다시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 3분 정도 침묵을 연습한다. 둘째는 믹서(Mixer)이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소리를 구별해 내는 것을 연습한다.

셋째는 일상소리 즐기기(Savoring)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일상적인 소리를 즐겨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듣기 포지션(Listening position) 연습이다. 능동적으로 들을지, 수동적으로 들을지, 비판적으로 들을지, 공감하며 들을지 등 경청할 때의 포지션을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RASA (.Receive, Appreciate, Summaries, Ask, 주의-인식-요약-질문)을 의사소통할 때 연습한다.



<그림2> Treasure, J.(2011)의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

출처: youtube(2011)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리더와 직원들과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리더는 소통을 통해 비전과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필요한 시대이다(KIRD, 2021). KIRD(2021)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말하기 방법 즉 전달방법과 전달과정에서 편안함을 주는 제스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특히 경청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줄리안 트레저의 5가지 잘 듣는 방법 중 RASA를 소개하였다.



<그림1> 리더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출처: KIRD 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1. 9. 10.작성) 소통_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 한마디 (KIRD 박귀찬_원장님)_1부, <https://youtu.be/GYMTewlHrD8> (접속일: 2021. 10. 31.)

Julian Treasure(2011)은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5 ways to listen better)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침묵(Silence)이다. 다시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 3분 정도 침묵을 연습한다. 둘째는 믹서(Mixer)이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소리를 구별해 내는 것을 연습한다. 셋째는 일상소리 즐기기(Savoring)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일상적인 소리를 즐겨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듣기 포지션(Listening position) 연습이다. 능동적으로 들을지, 수동적으로 들을지, 비판적으로 들을지, 공감하며 들을지 등 경청할 때의 포지션을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RASA (.Receive, Appreciate, Summaries, Ask, 주의-인식-요약-질문)을 의사소통할 때 연습한다.



〈그림2〉 Treasure, J.(2011)의 더 잘 듣기 위한 5가지 방법

출처: Treasure, J.(2011) “5 ways to listen better”
<https://www.youtube.com/watch?v=cSohjYQl2A>[TedVideo], 6:17:7:50
 (접속일: 2022. 1. 16.)

■ **참고 문헌** KIRD 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1. 9. 10.작성) 소통_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 한마디(KIRD 박귀찬_원장님)_1부, <https://youtu.be/GYMTewlHrD8>[Viedo] (접속일: 2021. 10. 31.)
 TED(2011. 7. 30.) 5 ways to listen better | Julian Treasure
<https://www.youtube.com/watch?v=bvAEJ8G9l9U&t=232s>[Ted Video] (접속일: 2022. 1. 16.)

이미지의 부적절한 인용 사례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고흐의 작품 <자화상>과 고흐에 대한 기술이 담겨 있는 블로그 등이 활용되어 작성된 사례임.
-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인터넷상의 많은 이미지를 인용할 때,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으로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또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70), 온라인 유통 이미지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함.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1항)’이며, 저작권법에서는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및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등이 해당함(동법 제4조4항~8항).
- 본문에 사용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사진은 사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음.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함.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국내사용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국내 법령에 따름(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0.12.).³⁰⁾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상 및 반 고흐에 대해 기술하거나 작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경우는 보고 쓴 글에 대한 출처를 표기해야 함.
- 일반적인 지식(사실)인 경우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일반적 지식(사실)이란 통상적인 일반 지식(역사적 날짜, 역사적 사실, 특정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 등)이나 객관적 사실에 불과한 정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특정인의 고유한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일반적 지식(사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처표기를 해야 함(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105).

30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10. 12. 작성), 해외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해도 괜찮을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2113637467 (접속일: 2022. 1. 16.)

-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을 유의해야 함. 사진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창작성을 인정받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오승종, 2020:139). SNS에 공개 자료로 올려놓은 이미지인 경우에도 그 인용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과 이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저작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동법 제5조, 제6조). 단,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예외임(동법 제7조).
- 저작권법에 속했던 저작물이라도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동법 제39조). 단,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음(동법 제50조).

부적절한 인용 예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는 네덜란드 출생의 인상주의 작가로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반 고흐는 일생을 통해 정신적 질환과 근심을 고통으로 겪었으며, 37세의 나이에 권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사후에야 알려진 반 고흐는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이다.



〈그림1〉 고흐의 자화상

■ **참고 사이트** Vincent van Gogh(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는 네덜란드 출생의 인상주의 작가로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주고 있으며,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본인이 생존해 있던 그 시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2020). 매우 훌륭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존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그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생존 과정에서도 정신 질환과 삶에 대한 근심, 생계를 위한 걱정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바라보게 한다.



〈그림1〉 고흐의 자화상

출처: 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 **참고 사이트**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3. 11.작성) 현대미술 쉽게 보기
[네이버캐스트], 빈센트 반 고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cid=58862&categoryId=58876>
(접속일: 2021. 10. 20.)

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p>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2020)</p>	<p>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2020. 3. 11. 작성) 현대미술 쉽게 보기 [네이버캐스트], 빈센트 반 고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cid=58862&categoryId=58876 (접속일: 2021. 10. 20.)</p>	<p>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2020. 3. 11. 작성) 현대미술 쉽게 보기 [네이버캐스트], 빈센트 반 고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889&cid=58862&categoryId=58876 (접속일: 2021. 10. 20.)</p>
<p>Van Gogh V.W.(1887) (Van Gogh V.W., 1887)</p>	<p>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p>	<p>Van Gogh V.W.(1887). 자화상(Self-portrai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https://www.rijksmuseum.nl/en/rijksstudio/artists/vincent-van-gogh (접속일: 2021. 9. 6.)</p>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웹페이지 자료의 인용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인용 양식(citation style)과 미국 심리학회(APA)의 APA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글임.
- 본 사례의 부적절한 인용표시 예시의 첫 번째로, 서울대 도서관 웹페이지의 학문분야별 대표 양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인용한 표 하단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서 부적정 사례로 제시된 글임.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은 본문이나 표 하단 두 곳 모두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나, 표의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표 하단에만 출처표기를 하여도 무방함.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0:154)는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와 그림을 활용할 경우, 제시된 표나 그림의 위나 아래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함. 또한 본문에서 출처표기를 한 해당 표와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에도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올바른 인용방법의 제안 중 두 번째는 APA 웹페이지의 APA 양식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발전시켜 작성한 부분이나, APA 웹페이지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서 부적정 표기로 제시된 사례임. APA 홈페이지에서 APA 양식의 시초가 되는 글, 그리고 교육자 및 연구자의 요구로 인해 APA 출판매뉴얼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아이디어를 획득 하였지만, 본 사례에서는 해당 부분을 생략하였음. 그러나 연구자가 해당 아이디어를 타인의 저작물 (이것이 기초적인 설명 자료일지라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웹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작성자(발행기관), 발행일(년, 월, 일), 페이지 제목, 사이트명, URL, 접속일 등의 정보를 모두 표기해야 함. APA 양식의 경우, 페이지의 작성자나 발행기관이 표시 되어 있지 않으면 페이지 제목으로 시작하여 출처를 표기하며, 페이지 내용이 시간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색 날짜를 표기함. 발행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행일 자리에 'NO DATA'의 약어인 'n.d.'를 표기함.³²⁾

32 Purdue Writing Lab. "Web Sources // Purdue Writing Lab." Purdue Writing Lab. (접속일: 2021. 9. 13.)

☑ 참조: A.P.A. 양식 웹페이지 출처표기

(국문) 발행기관, 발행일, 페이지 제목, 사이트 이름, URL, 접속일

(영문) Purdue Writing Lab. (n.d.). Apa Style Workshop. purdue writing lab. Purdue Writing Lab. Retrieved October 6, 2021, from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overview_and_workshop.html.

-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의 출처표기가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 주요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웹페이지에서는 스타일 자동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웹사이트 출처표기가 어려울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함.

☑ 참조: 출처표기 변환 제공 사이트

가. 한국어 사이트

- 카피킬러 출처 생성기: <https://citation.sawoo.com/ref/intro>
: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APA, Chicago, MLA, Vancouver 양식으로 총 4가지 스타일을 제공 중

나. 영문 사이트

- 퍼듀 대학: APA, Chicago, MLA의 출처표기 스타일 생성 제공

APA 양식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overview_and_workshop.html
Chicago 양식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chicago_manual_17th_edition/cmos_overview_and_workshop.html
MLA 양식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mla_style/mla_overview_and_workshop.html

부적절한 인용 예시



우리는 다양한 인용표기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참고문헌 표기 및 인용 양식이 서로 다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1\)}](#)에서는 <표1>과 같이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MLA, 사회과학 및 교육학에서는 APA, 문학, 역사학, 예술 분야에서는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자연과학 및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Chicago - Author-Date, 공학 분야는 IEEE 방식이 대표적이다.

<표1>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

학문구분	대표 양식	설명
인문학	MLA	저자권 중시 참고목록 작성시 저자명이 서명, 출판 정보보다 우선
사회과학, 교육학	APA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최신성, 관련성을 중시하여 참고문헌 목록에서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문학, 역사학, 예술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인용순서대로 각주, 미주 삽입하는 방식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가나다 순)으로 정리
자연과학, 사회과학	Chicago - Author-Date	본문 내 인용표기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가나다 순)으로 정리
공학	IEEE	시카고 방식에 기반한 양식 인용순서대로 본문에서 대괄호 내 숫자 표기 [1], [2]..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참고문헌 목록은 인용 순으로 정리

사회과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개발된 인용이다. APA 양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²⁾. Bentley et al(1929)는 *Psychological Bulletin* 저널에 7페이지 원고 준비 지침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을 게재하였다. 이 1929년 7페이지 분량이었던 원고 준비지침은 관련 연구자 및 교육자들의 요구에 의해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어, 현재 APA 출판매뉴얼(제7판) 약4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고 있다. 또한 APA는 온라인 튜토리얼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가 APA양식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1)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2021.12.21.)
 - 2) APA(n.d.), About APA Style, 2021. 12. 21. 접속,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우리는 다양한 인용표기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참고문헌 표기 및 인용 양식이 서로 다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¹⁾**에서는 <표1>과 같이 학문분야에 따른 인용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MLA, 사회과학 및 교육학에서는 APA, 문화, 역사학, 예술 분야에서는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자연과학 및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Chicago - Author-Date, 공학 분야는 IEEE 방식이 대표적이다.

<표1> 학문분야별 대표양식

학문구분	대표 양식	설명
인문학	MLA	저자권 중시 참고목록 작성시 저자명이 서명, 출판정보보다 우선
사회과학, 교육학	APA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최신성, 관련성을 중시하여 참고문헌 목록에서 출판일자가 저자명 바로 뒤에 위치
문학, 역사학, 예술	Chicago - Notes & Bibliography	인용순서대로 각주, 미주 삽입하는 방식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가나다 순)으로 정리

학문구분	대표 양식	설명
자연과학, 사회과학	Chicago - Author-Date	본문 내 인용표기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알파벳/ 가나다 순)으로 정리
공학	IEEE	시카고 방식에 기반한 양식 인용순서대로 본문에서 대괄호 내 숫자 표기 [1], [2]..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참고문헌 목록은 인용 순으로 정리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 2021. 12. 21.)

사회과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하 APA) 양식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개발된 인용이다. APA 양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²⁾. Bentley et al(1929)는 Psychological Bulletin 저널에 게재된 7페이지 원고 준비 지침(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³⁾이 그 시초가 되며, 1929년 7페이지 분량이었던 원고 준비지침은 관련 연구자 및 교육자들의 요구에 의해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어⁴⁾, 현재 APA 출판 매뉴얼(제7판) 약4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고 있다.

■ 각주 1)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2021.12.21.)

2) APA(n.d.), About APA Style, 2021.12.21. 접속,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3) Bentley, M., Peerenboom, C. A., Hodge, F. W., Passano, E. B., Warren, H. C., & Washburn, M. F. (1929).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Psychological Bulletin, 26(2), 57-63.
<https://doi.org/10.1037/h0071487>
 (접속일: 2021. 12. 21.)

4) APA(n.d.), About APA Style,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접속일: 2021. 12. 21.)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도서관 (2021)	서울대학교 도서관 (2021)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접속일:2021.12.21.)
APA(n.d.),	APA(n.d.),	APA(n.d.), About APA Style, https://apastyle.apa.org/about-apa-style (접속일: 2021. 12. 21.)
Bentley, M., et al. (1929).	Bentley, M., et al. (1929).	Bentley, M., Peerenboom, C. A., Hodge, F. W., Passano, E. B., Warren, H. C., & Washburn, M. F. (1929).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i>Psychological Bulletin</i> , 26(2), 57-63. https://doi.org/10.1037/h0071487 (접속일:2021.12.21.)

SNS, 블로그의 인용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KIRD 블로그, 신문기사, 웹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작성된 조사보고서임.
- 보고서나 논문 작성 시 국내외 사례 등을 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실제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례를 먼저 검색하게 됨. 최근 각 기관 및 협회에서 발간물을 인쇄자료 형태에서 디지털 자료로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인쇄물로 발간한 자료를 블로그에 그대로 탑재하기도 함. 블로그 등의 전자매체는 기존 인쇄물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첫 문단은 신문기사와 블로그 글을 이용하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팀의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 부적정 인용표기 사례로 제시됨.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다고 해서 출처표기 없이 자유롭게 인용하여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인용할 때, 블로그 인용 방법을 잘 몰라 인용표기 자체를 주저하게 되거나 논문 또는 보고서에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었을 때 내용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생각에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블로그를 활용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블로그 자체의 신뢰성을 판단하거나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등과 논의한 후 블로그 글을 본인의 글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APA 양식의 경우 블로그 인용 시 접속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만일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 인출 날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블로그 등과 같이 변화가 빈번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접속일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인용한 블로그에 대한 인용표기는 하였으나 “ ”의 직접인용 표기나 바꿔쓰기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연구부정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시로 포함하였음. 블로그 등의 온라인 자료는 기술적으로 원문 그대로 옮겨오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바꿔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글을 이용하기 쉬움. 또한, 일부 연구자는 추후에 수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원문을 수정하지 않은 채 원문을 글에 복사하여 붙여 넣은 다음, 수정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려 의도치 않은 연구윤리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블로그 글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타인이 작성한 글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문 인용 표기와 같이 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후 바꿔쓰기를 통해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원문을 바꿔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직접인용 표기(“ ”)를 해야 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17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식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이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의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20년 1월에 개최한 것이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내었다.

- 요약 -

감염병 연구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감염병 발생 조기경보 ② 확산예측 ③ 방역정책 제언(자문)이다.¹⁾ 조기경보는 국가별로 알려진 감염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다.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모이는 300개 국내 응급실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확산예측은 ‘감염재생산지수’를 측정해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그려보는 것이다. 재생산지수는 주로 3가지 요인인 바이러스의 전염력, 사람들 간 접촉수준(밀접접촉량), 감염기간을 토대로 도출한다. 예측활동은 일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일이라 최선과 최악의 상황을 모두 산정한다.

- 요약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의 코로나19 확산예측 리포트(2021. 9. 10. 작성)²⁾에서는 백신 확산 과정에서의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3차 유행기간에서는 50~59세, 60~59세, 40~4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던 반면, 4차 유행 상황에서는 18~29세, 0~17세, 30~3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이는 그간의 백신 접종 완료층이 고령자 중심이었던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참고 1) 김우현(2020.12.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42057>

(접속일: 2021. 9. 13.)

2)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욱교수 연구팀, (2021. 9.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 (접속일:2021.9.13.)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은 17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식별하는 기술을 최근 발표하였다.¹⁾ 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 연구팀이 코로나 19 연구를 시작한지 약 1년만의 성과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팀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의 ‘원인불명의 폐렴’ 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20년 1월에 개최한 것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내었다.²⁾

- 요약 -

감염병 연구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감염병의 국내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감염병 발생 조기경보, 둘째, ‘감염재생산 지수’를 측정해 감염병의 추세 확산 예측, 셋째, 해당 전염병을 통제·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²⁾

- 요약 -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의 건국대학교 정은옥 연구팀(2021. 9. 10. 작성)에 따르면 백신 확산 과정에서의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³⁾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집단이 3차 유행기간에서는 50~59세, 60~59세, 40~4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던 반면, 4차 유행 상황에서는 18~29세, 0~17세, 30~39세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이는 그 간의 백신 접종 완료층이 고령자 중심이었던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참고 문헌 1)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057>
(접속일: 2021. 9. 13.)

2) KIRD(2021. 8. 24. 작성) [人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접속<https://blog.naver.com/keydream/222482501927>
(접속일: 2021. 9. 13.)

3)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 (접속일: 2021. 9. 13.)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김우현(2020) (김우현, 2020)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또는 김우현(2020)	김우현(2020. 12. 3. 작성) 국내 연구팀, 17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판별하는 진단기술 확보,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42057 (접속일: 2021. 9. 13.)
KIRD(2021) (KIRD, 2021)	KIRD(2021. 8. 24. 작성)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또는 KIRD(2021)	KIRD(2021. 8. 24. 작성) [Sight] 국가수리과학(연) 손우식 감염병연구팀장, KIRD, 접속 https://blog.naver.com/keydream/222482501927 (접속일: 2021. 9. 13.)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 교수 연구팀 (2021) (코로나19 수리모델링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TF, 2021)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또는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2021)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_건국대학교 정은옥교수 연구팀, (2021. 9. 10. 작성) 연령군, 백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research/post/covid19_2/34393 (접속일: 2021. 9. 13.)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정부 발간 통계자료의 활용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국가통계지표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인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구성된 글임.
- 표 1은 통계자료의 출처를 표기할 때 URL만 표기하여 인용표기 부적정 사례로 제시된 부분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경우, 발행기관, DB의 명칭, DB 작성일(갱신일), DB 발행처, DB 접속일, URL 등을 함께 기입함. URL 단독으로만 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표 2는 표 하단에 온라인 DB에 대한 출처를 표기하였으나, 보다 바람직한 출처표기 방법이 있어서 제시된 사례임. 본 사례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로 출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 독자가 해당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DB를 검색하는 경우, 「지역별고용조사」는 KOSIS(<https://kosis.kr/index/index.do>)뿐만 아니라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도 확인됨.
- 동일한 명칭의 통계자료 DB일지라도 해당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따라 제공되는 DB의 시간적 범위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활용한 사이트의 명칭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9년 현재 46%로 지난 8년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4%(550만 가구)에서 2019년도 46%(556만 가구)로 다소 증가하였다(표1). 본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이다. 유자녀 기준(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보면, 6세 이하가 44.6%, 7~12세 가구가 54.8%, 13~17세 가구가 59.5%로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1〉 지난 10년간 맞벌이 가구 비율의 변화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맞벌이 가구수	5,241	5,201	5,175	5,331	5,358	5,545	5,456	5,675	5,662
전체 비율*	44.6	44.0	43.3	44.2	44.1	45.5	44.6	46.3	46.0
15~29세	39.0	40.3	37.7	37.8	36.8	38.6	36.8	38.6	40.1
30~39세	41.4	41.7	41.5	42.6	43.5	45.7	47.3	49.9	50.2
40~49세	52.5	52.1	50.6	51.7	51.2	52.7	52.1	54.2	54.2
50~64세	47.5	46.9	46.5	47.8	48.2	49.8	48.7	50.5	50.1
65세 이상	26.9	25.2	26.2	26.4	25.4	25.9	24.1	25.4	25.5

*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표2〉 유배우 및 맞벌이 가구와 자녀 연령과의 관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전체 (0~17세)	4,761	2,246	47.2	4,665	2,258	48.4	4,537	2,207	48.6	4,407	2,248	51	4,366	2,246	514
6세 이하	2,134	813	38.1	2,090	827	39.6	2,062	857	41.6	1,994	882	44.2	1,932	861	44.6
7~12세	1,330	684	51.5	1,308	690	52.7	1,285	659	51.3	1,318	715	54.2	1,381	758	54.8
13~17세	1,297	748	57.7	1,267	741	58.5	1,190	691	58.1	1,095	652	59.6	1,054	627	59.5

출처: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9년 현재 46%로 지난 8년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4%(550만 가구)에서 2019년도 46%(556만 가구)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1〉. 본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이다. 유자녀 기준(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보면, 6세 이하가 44.6%, 7~12세 가구가 54.8%, 13~17세 가구가 59.5%로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표1〉 지난 10년간 맞벌이 가구 비율의 변화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맞벌이 가구수	5,241	5,201	5,175	5,331	5,358	5,545	5,456	5,675	5,662
전체 비율*	44.6	44.0	43.3	44.2	44.1	45.5	44.6	46.3	46.0
15~29세	39.0	40.3	37.7	37.8	36.8	38.6	36.8	38.6	40.1
30~39세	41.4	41.7	41.5	42.6	43.5	45.7	47.3	49.9	50.2
40~49세	52.5	52.1	50.6	51.7	51.2	52.7	52.1	54.2	54.2
50~64세	47.5	46.9	46.5	47.8	48.2	49.8	48.7	50.5	50.1
65세 이상	26.9	25.2	26.2	26.4	25.4	25.9	24.1	25.4	25.5

*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출처: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표2〉 유배우 및 맞벌이 가구와 자녀 연령과의 관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전체 (0~17세)	4,761	2,246	47.2	4,665	2,258	48.4	4,537	2,207	48.6	4,407	2,248	51	4,366	2,246	51.4
6세 이하	2,134	813	38.1	2,090	827	39.6	2,062	857	41.6	1,994	882	44.2	1,932	861	44.6
7~12세	1,330	684	51.5	1,308	690	52.7	1,285	659	51.3	1,318	715	54.2	1,381	758	54.8
13~17세	1,297	748	57.7	1,267	741	58.5	1,190	691	58.1	1,095	652	59.6	1,054	627	59.5

출처: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 참고 문헌
-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통계청(2020) (통계청, 2020)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통계청(2020)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통계청(2020) (통계청, 2020)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통계청 또는 통계청(2020)	통계청(2020. 12. 1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2019,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접속일: 2021. 12. 12.)

OECD AI 자료의 활용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OECD.AI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OECD.AI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임.
- 첫 번째 문단은 OECD.AI 관련 정보를 KISTEP(2020)의 자료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ISTEP(2020)의 인용표기를 누락한 사례임. OECD.AI 설명 내용을 KISTEP(2020)에서 사용한 표현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함.
- 나머지 내용은 OECD.AI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일부로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그림 하단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부적정 인용 사례로 제시됨. 타인이 작성한 글이나 그림을 활용하는 경우,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와 그림이 재인용되는 경우 원출처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표/그림 하단에 출처표기는 반드시 해야 하며, 본문의 내용이 표/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본문에서는 출처 표기를 생략해도 됨.
- 온라인에서 분석 또는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사이트명, 인용된 자료, 시각화 제공자명, 구현된 날짜, URL 등의 정보를 표기하는 것이 좋음. 본 보고서에서는 MAG(Microsoft Academic Graph) 데이터(그림1~2)와 LinkedIn 데이터(그림3~그림5)가 사용되었으며 OECD 협력업체인 JSI에서 시각화한 것을 표시함.
-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주요 기구 및 국가에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분석 및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이트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자료를 취득하고 시각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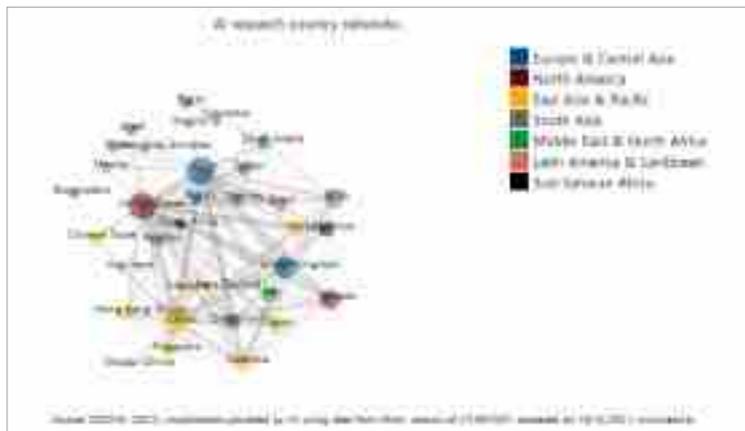
사이트명	URL	기능
지오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https://data.kigam.re.kr/	디지털 연구데이터 무료 제공, 지질주제도 통합서비스 제공,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Dataon) 연계, 데이터 기반의 협력 연구 생태계 구축 등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https://dataon.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 및 관리하고, 검색,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 정보시스템	http://nrcdata.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유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OECD AI Policy Observatory	http://oedc.ai	OECD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등

부적절한 인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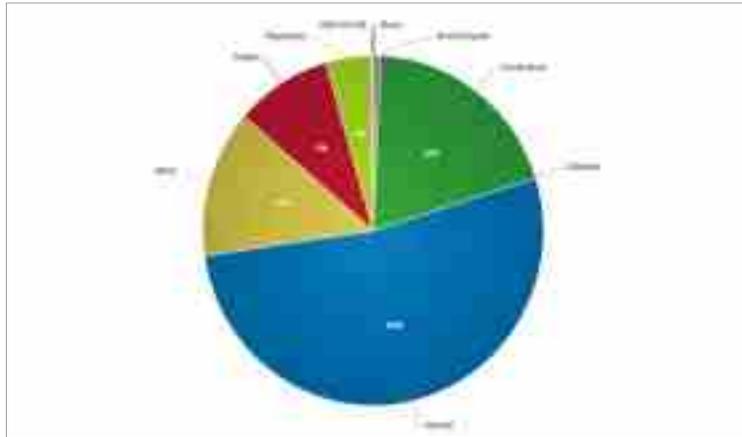
「OECD AI Policy Observatory」는 OECD가 구축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관련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AI 정책 및 정책 추진 현황, 관련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AI 연구의 국가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위해 OECD.AI.(202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1). <그림1>의 동그라미는 1980년 이후 양국 공동으로 출판한 출판물의 누적 수를 의미한다(OECD.AI., 2021). AI 연구 국가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미국, EU27, 영국 중심으로 국가 간 AI 관련 협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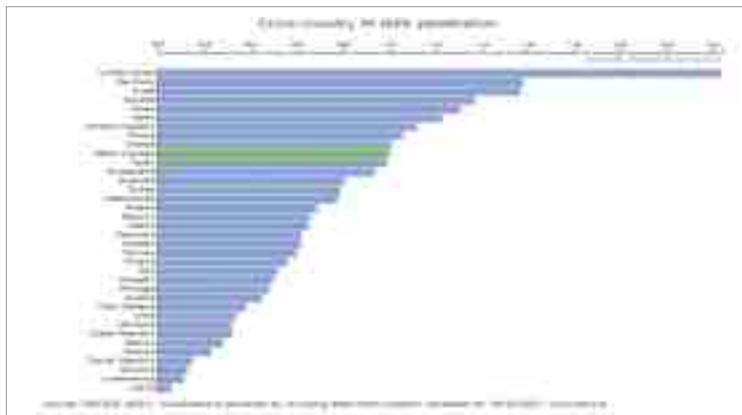
<그림1> AI 연구의 국가 간 네트워크

AI 연구 출판물은 53% 이상이 학술 논문으로 구성되며, 컨퍼런스, 특허, 책의 일부분(북 챕터) 등으로 이루어진다(OECD.AI., 2021)<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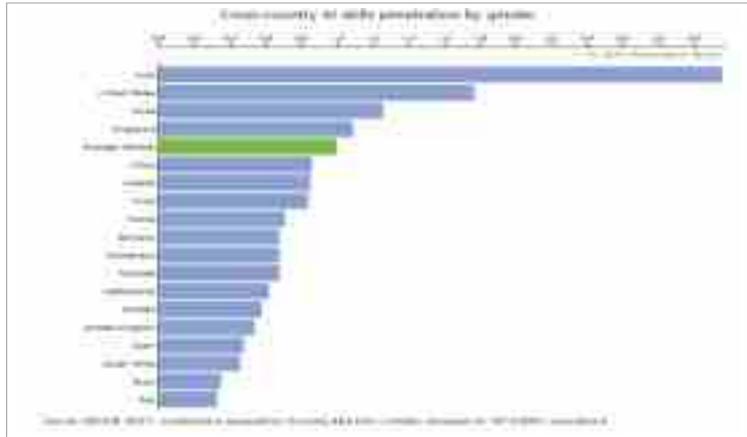
<그림2> AI 연구 발행물의 구성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AI 스킬 보유 국가 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OECD.AI., 2021). 2015년부터 2020년 평균 LinkedIn 회원 10만 명 이상인 국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AI 스킬 보유(skill penetration) 현황은 1위가 미국, 2위가 독일, 3위가 이스라엘, 4위가 캐나다, 5위가 한국, 6위가 일본, 7위가 영국 순으로 기록 되었다. 35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9개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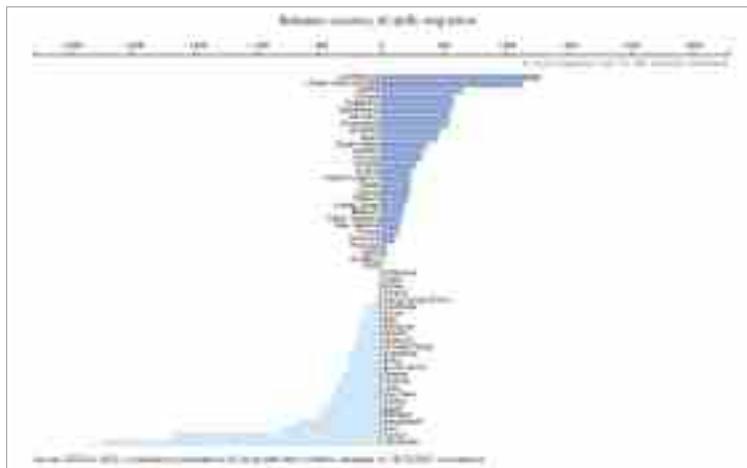
<그림3> 국가별 AI 기술 보유 현황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AI 기술보유 역량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3위로 나타난다<그림4>.



<그림4> 국가별 여성인력의 AI 기술 보유 현황

국가 간 AI 기술보유 인력의 유입유출현황을 보면,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 일본 순으로 순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네수엘라, 튀니지,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그리스, 대한민국, 그리스 순으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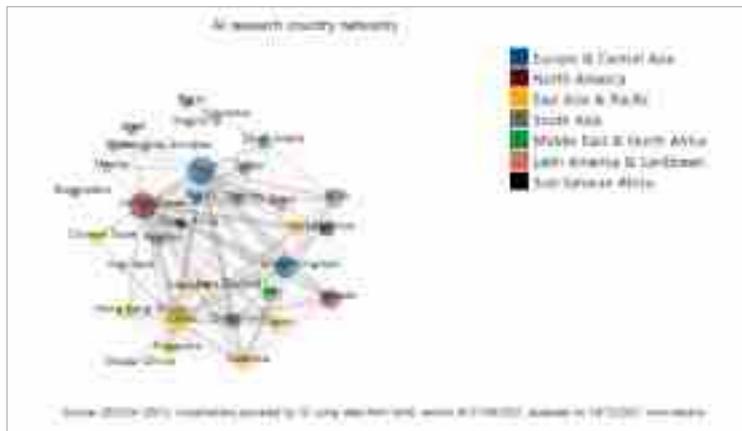
<그림 5> 국가 간 AI 기술 보유 인력의 이동현황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OECD AI Policy Observatory」은 OECD가 구축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관련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AI 정책 및 정책 추진 현황, 관련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KISTEP,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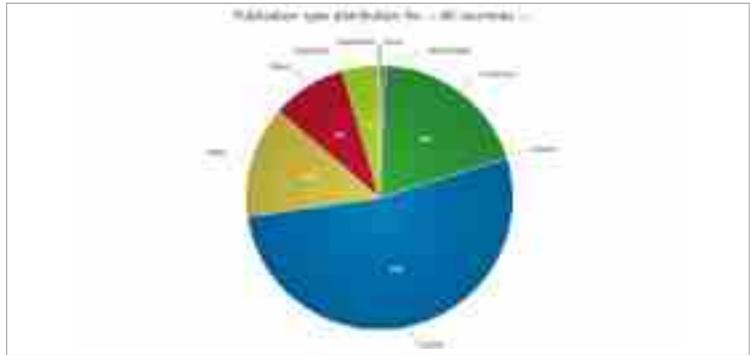
AI 연구의 국가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위해 OECD.AI.(202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1). <그림1>의 동그라미는 1980년 이후 양국 공동으로 출판한 출판물의 누적 수를 의미한다(OECD.AI., 2021). AI 연구 국가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미국, EU27, 영국 중심으로 국가 간 AI 관련 협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AI 연구의 국가 간 네트워크

출처: OECD.AI(2021),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country-networks>
(접속일: 2021.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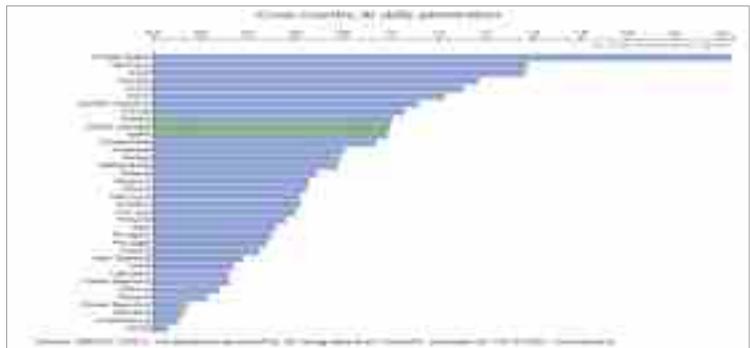
AI 연구 출판물은 53%이상이 학술논문으로 구성되며, 컨퍼런스, 특히, 책의 일부분(북 챕터) 등으로 이루어진다.<그림2>



〈그림2〉 AI 연구 발행물의 구성

출처: OECD.AI(2021),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publication-type-distribution-by-country>
 (접속일: 2021. 11. 15.)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AI 스킬 보유 국가 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OECD.AI., 2021). 2015년부터 2020년 평균 LinkedIn 회원 10만 명 이상인 국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AI 스킬 보유(skill penetration) 현황은 1위가 미국, 2위가 독일, 3위가 이스라엘, 4위가 캐나다, 5위가 한국, 6위가 일본, 7위가 영국 순으로 기록 되었다. 35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9개로 나타났다(OECD.AI., 2021)〈그림3〉



〈그림3〉 국가별 AI 기술 보유 현황

출처: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cross-country-ai-skills-penetration>
 (접속일: 2021. 12. 18.)

출처: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between-country-ai-skills-migration>
 (접속일: 2021. 12. 18.)

■ **참고 문헌** KISTEP(2020.2)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브리프] OECD 국가별 AI 스킬 보유 및 AI 인력 유출입 현황

https://hrstpolicy.re.kr/kistep/kr/board/BoardDetail.html?lastIndex=30&board_seq=40996&rootId=2006000&board_class=BOARD04&menuId=2006102&pageIndex=3&searchType=subject&pageIndex=1
 (접속일:2021.12.18.)

OECD.AI(2021a), MAG(Microsoft Academic Graph)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2021. 9. 27.버전,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research&selectedVisualization=ai-research-publication-type-distribution-by-country>
 (접속일: 2021. 11. 15.)

OECD.AI(2021), LinkedIn 데이터를 사용하여 JSI에서 시각화,
<https://oecd.ai/en/data-from-partners?selectedArea=ai-jobs-and-skills&selectedVisualization=between-country-ai-skills-migration>
 (접속일: 2021. 12. 18.)



OECD 인벤토리 자료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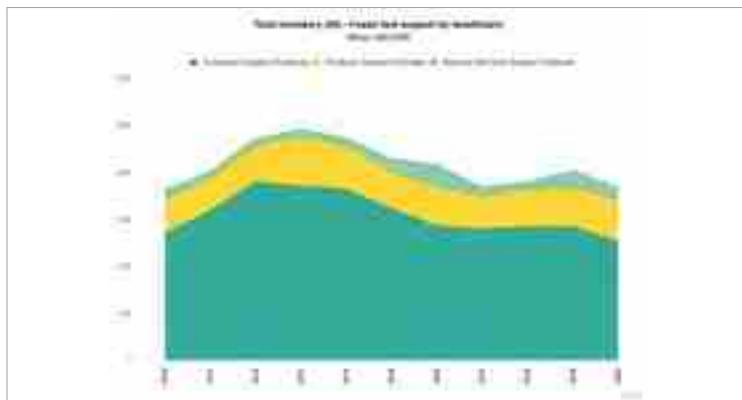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본 사례는 OECD 인벤토리에서 제공하는 그림과 글을 활용하였고, 표 하단에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본문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제시된 사례임. 본문의 내용은 출처를 표기하고 있는 그림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한 본문에 대한 출처표기가 필요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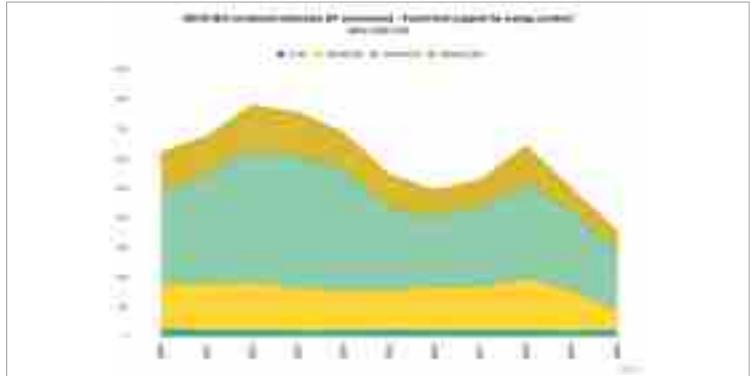
전 세계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각 국가 지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 규모 추정에 따르면, 2020년 화석연료 소비지원금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주요 국가의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2020년의 정부 지원금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침체와 사상 최저수준의 유가가 원인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1〉 Total inventory - Fossil-fuel support by beneficiary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https://www.oecd.org/fossil-fu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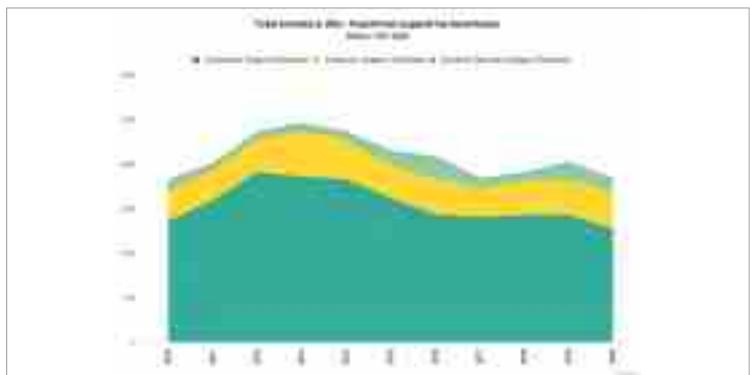
〈그림 2〉 OECD-IEA combined estimates - Fossil-fuel support by energy product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https://www.oecd.org/fossil-fuels/>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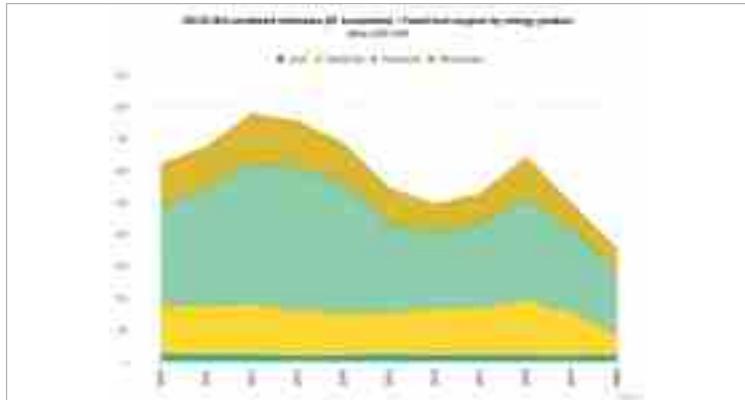


전 세계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각 국가 지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OECD·IEA, 2021). 화석연료 소비지원금의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점차 줄어들고 있다(그림1).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저탄소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 OECD·IEA(2021)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경제국의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2020년의 정부 지원금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침체와 사상 최저수준의 유가가 원인이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림 1〉 Total inventory - Fossil-fuel support by beneficiary

출처: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2. 18.)



〈그림 2〉 OECD-IEA combined estimates - Fossil-fuel support by energy product

출처: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2021. 12. 18. 접속, [https://www.oecd.org/fossil-fuels/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https://www.oecd.org/fossil-fuels/OECD%20(2021),%20Inventory%20of%20Support%20Measures%20for%20Fossil%20Fuels%20(database).%20OECD%20홈페이지,%20https://www.oecd.org/fossil-fuels/)

내용주	각주	참고문헌
OECD(2021) (OECD, 2021)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2. 18.)	OECD(2021) 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2. 18.)
OECD(2021) (OECD, 2021)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	OECD (2021),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database).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fossil-fuels/ (접속일: 2021. 11. 15.)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올바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부록

인용

사례

Q&A
01

타인이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미출판 내용을 자신의 연구에 소개하는 경우



현재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학술 세미나에서 타인이 발표한 연구내용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방향이 유사하다. 타인의 세미나 발표 내용은 아직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㉓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㉔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㉕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구자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때 타인이 공식적인 출판 절차에 의해 발표한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는 물론이고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 세미나, 좌담회, 워크숍 등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연구 내용이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출처표기하는 방식은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³³⁾

33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8.

Q&A
02

타인의 논문에 실린 표와 그림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연구 주제가 유사한 타인의 논문에 실린 표와 그림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연구 개념을 표현하는 모식도(schematic diagram)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타인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는 표로 작성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표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원저작자의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을 얼마나 침해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작자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독창성이 내재된 그림, 표 등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이나 표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을 추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하여 활용하는 경우이지만, 수정된 해당 그림과 표에는 원저작자의 학술적 기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학술적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고, 해당 그림과 표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음을 밝혀주어야 한다. 이는 어떤 연구자의 논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나 논문의 핵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후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 논문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이 고안해낸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나 연구 방법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처럼 전적으로 그것을 고안한 타인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와 그림을 활용할 경우 출처표기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제시된 표나 그림 상단 제목 부분이나 하단부에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출처표기를 한 해당 표와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저작물 속에 포함된 표나 그림을 그대로가 아닌 자신의 연구의 맥락에 맞게 변형하였다 하더라도 원본에 대한 출처를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취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³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한정되며, 특정 도서 등의 창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사상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p.154.

Q&A
03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계획서의 활용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자 A’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제 선정에 실패하였다. 추후에 그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연구 아이디어 및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자 A’가 아닌 ‘연구자 B’와 함께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구자들은 표절의 대상 저작물을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 논문이나 정식으로 출판된 저서 등으로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출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연구계획서 혹은 연구과제 제안서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과제 제안서에는 대부분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 배경,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연구 아이디어, 연구 방법 등 독창성이 내재되어 있어 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연구계획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연구제안서라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대상이 된다.

본 사안의 경우처럼 연구비 지원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되지 않은 이전 연구과제 제안서에서 자신이 학술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새로운 연구과제 제안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 연구자 A에 의해 작성된 아이디어, 문장 등을 원저자자인 공동 연구자 A의 승인 및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제안서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로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 동료심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연구제안서나 투고 논문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는 합의된 규칙이 없으나,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했다면 어떤 형태든 상황에 맞게 원저자의 학술적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³⁵⁾

3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2.

Q&A
04

해외 국가의 역사, 법규, 정책 등에 관해 소개한 글을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백과사전과 언론 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역사, 법규, 기존 정책 등에 관한 글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만약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면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해도 되는가?³⁶⁾



특정 국가 및 기관의 제도, 법규, 정책 등은 특정 연구자의 독창적인 학술적 연구내용 및 결과가 아니고, 온라인 백과사전 및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일반 지식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지식은 특정 학문 공동체의 범위 안에서만 통용되므로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 지식이 아닐 수 있어 이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국토 면적, 인구, 사건 사고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단순 정보인 경우처럼 누가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일반적 지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히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저자의 분석이나 전문가적 견해를 가미하여 그것을 재구성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고유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처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필자의 고유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 언론사의 논설, 칼럼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시된 보도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언론 기고문 등에 들어가 있는 특정 국가 및 기관의 제도, 법규, 정책 등을 자신의 보고서 등에 활용할 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개한 저작자의 노력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일반 지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pp.152-156.

Q&A
05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다수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새롭게 고안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와 해외의 연구 결과를 분리하여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에 각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



중복게재는 일반적으로 이미 게재·출판된 자신의 논문·저서·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기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연구윤리지침」을 보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로. 단, 연속 논문은 제외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이 작성한 부분에 비해 주(主)가 되어 새로 작성한 해당 연구의 독자성 혹은 학술적 독창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와 같이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였지만 연구 대상이 국내와 해외로 다른 경우, 두 논문의 내용상 유사성이 적고 개별 논문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및 독자성을 지닌다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에도 후속 논문에서 이전 논문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논문에 대해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중복게재의 유형 중 쪼개기 출판(salami publication)이 있는데, 이는 연구수행 후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고의로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얻은 연구 결과들을 개별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경우, 개별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논문을 분리하여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상호 논문에 대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학문 분야별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후속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반드시 이전 논문을 언급하여 동료 심사자가 논문 심사 시에 해당 논문들 사이의 유사성 및 학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은 국내 및 국외 논문의 구별과 무관하게 두 개의 논문이 모두 별개의 연구 논문으로서 충분한 학술적 가치가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후속 논문에 선행 논문에서 이미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논문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³⁷⁾

37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52, 63.

Q&A
06**학술지 논문에 출판된 내용을
학위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으로 현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박사학위 과정 중에 획득한 연구 결과의 일부를 이미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박사학위 논문에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적절한 출처표기 등 선행 절차는 무엇인가?³⁸⁾



최근 국내 대학의 대다수 이공계 분야 학과에서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요건으로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자신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저널)에 논문으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학위과정 중에 획득한 연구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추후 박사학위 논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와 텍스트를 포함한 본인의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동료 심사자들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학술지에 발표된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는 그 출처를 적절히 표시하되, 그 방식은 해당 대학의 학위 논문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따라야 한다.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³⁹⁾ 예를 들어서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학술지 논문을 활용할 때 학위 논문 작성자가 자신이 해당 학술지 논문에 기여한 데이터 혹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공동 저자의 학술적 기여 부분이 포함된 학술지 논문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저자가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자신의 학위 논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며,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사용한 데이터가 타인에 의해 얻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38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53, 61, 66.

39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7.

Q&A
07

연구과제 보고서의 내용을 학위 및 학술지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한 연구 내용이 연구과제 보고서에 포함되어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되었다. 대학원생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한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가?⁴⁰⁾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획득한 연구 결과가 해당 연구과제의 보고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이공학 및 의학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연구윤리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특정 연구과제의 결과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학위 논문 혹은 학술지 논문에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관한 연구과제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적절한 연구비 사사 표기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술지 논문에 “이 논문은 000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과 같이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과제 수행 중에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연구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자신의 학위 논문에 사용하였다면 표절에 해당하게 된다.⁴¹⁾

지도 교수는 대학원생이 작성한 학위 논문에 기술된 연구 방법, 결과, 해석 및 결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 지도교수가 학위 논문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게 혹은 이를 요약·발췌하여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때, 대학원생이 해당 학술지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고, 그 예로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40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65, 70.

4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70.

Q&A
08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프로시딩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학술대회에서 프로시딩 형태의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추후에 정규 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학술대회 프로시딩(proceedings)은 정규 학술지 논문과 형식은 매우 유사하지만 한정된 부수만이 출간되고 그 보급 경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규 학술지 논문과 달리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열람하기 어려운 회색 문헌(grey literature)으로 간주되었다. 동료심사를 거쳐서 엄격히 선정하는 프로시딩 논문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프로시딩 논문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정규 학술 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SCIE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해당 프로시딩에 실린 연구 내용을 그대로 혹은 수정, 보완하여 정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매우 발달하여 인문·사회 및 공학 분야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프로시딩은 과거와는 달리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상적인 학술지 논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학술대회 프로시딩의 경우와 같이 일부 공학계열에서는 학술대회 프로시딩을 스스로 저널이라고 하고 있다. IEEE 학술대회들은 연구자들의 발표를 접수할 때 ‘Call for abstracts’가 아닌 ‘Call for papers’라고 하며, 많은 경우 엄격한 동료심사 절차를 통해 프로시딩에 실리는 문건을 논문으로 선정하여 출판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PDF 파일의 형태로 내용이 이미 공개된 프로시딩을 활용하여 후속 논문으로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학술지 투고 시에 “본 논문은 다른 매체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저자 서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프로시딩으로 발표된 논문을 새로운 학술 논문으로 발표할 때 학술지에 따라서는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IEEE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자료의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 재사용하는 경우 그 원 논문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새 논문이 과거의 논문에 비해 어떠한 새롭고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할 것인지를 밝혀 편집자의 승인을 받으면 자신의 학술지에 정규 논문(full paper)으로 실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은 ‘과거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임에도 새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IEEE의 입장이다.⁴²⁾

42 한국과학기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5.

Q&A
09

여러 논문의 내용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이전에 자신이 학술지에 발표한 여러 논문의 내용을 모아 저서로 발표하고자 한다.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가? 없다면 이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본 사안은 이전에 발표한 여러 연구 논문의 내용을 모아 독자에게 유의미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서로 출판하는 것이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느냐의 이슈이다. 대다수의 학회나 학술지 출판사에서는 논문의 출판 이후 해당 학회나 학술지에 저작권이 전부 또는 일부 귀속됨을 안내하고 있다. 물론 각 저자들에게도 논문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가 있으나, 전문을 활용한 2차 출판의 경우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학술지 논문의 출판사 혹은 학회로부터 사전 동의 혹은 저작권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후속 저작물인 저서에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출판 정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연구윤리지침」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 이미 발표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차이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기표절(self-plagiarism)과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는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학술단체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복게재에는 자기표절과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자기표절과 이중게재를 포함한 중복게재는 남의 글을 훔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표절과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발표한 과거 저작물의 일부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자 새로이 발표하는 글의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⁴³⁾

또한 학술적 가치가 크지 않은 논문을 손쉽게 만들어내어 논문 실적을 부풀리는 부당한 행위로 연구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는 대신 “부당한 중복게재”를 2015년부터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였다.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5호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연구윤리지침」에는 “중복게재”를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의미는 비교되는 두 학술적 저작물이 말 그대로 거의 똑같은 것으로, 예를 들면 논문 제목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이 같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의 일부가 조금 바뀌었을 뿐 나머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⁴⁴⁾ 이러한 경우를 통상적으로 중복게재 중 “이중게재”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유사한”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 학술적 저작물과 이후의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 등에서 거의 유사하다(substantially similar)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용의 일부를 바꾸었거나, 새로이 추가했다고 해도 연구자의 논지와 결론 등이 비교되는 두 저작물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학술적 저작물을 의미 있게 해주는 몇 가지 주요 부분(가설, 표본 수,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등)에서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하다.⁴⁵⁾ 자신의 이전 논문에 기술된 서론 일부분을 새로운 후속 논문에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 즉 전체 논문의 내용 중 다시 사용한 부분이 적은 경우를 통상적으로 중복게재 중 자기표절이라고 한다.

43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0.

4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6.

4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6.

참고문헌

법령 및 관련 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일부개정)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2009. 9., 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칙」(2021.8.9., 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타법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2020.12.8., 일부개정)

국내 및 해외 문헌

- 한국과학기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Appearance Publishers, 『APA/MLA guidelines: Concise Guide to APA and MLA Styles』, 202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201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집필진	이원용 연세대학교 이경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해진 세명대학교
기획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연구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발행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문의처	인재교육사업실 전문역량교육팀(sjchoi@kird.re.kr)
발행일	2022년 3월

디자인 및 인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